



LENT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 <https://stfrancisnyc.org/>
Email: stfranciskc.org@gmail.com

주임신부 : Joseph Juracek, O.F.M

지도신부 : 김진열 가롤로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carolokimofm@gmail.com

지도수녀 : 김효주 (투스 평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백이백 아오스딩 646. 599. 5795

제1독서 | 예레미야 31,31-34

화답송



(후렴)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소서.

○ 하느님, 당신 자애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로 저의 죄악을 없애 주소서. 제 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제 잘못을 깨끗이 지워 주소서. ◎ ○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제 안에 굳건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당신 앞에서 저를 내치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 ◎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밀줄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숙임>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송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제2독서 | 히브리 5,7-9

복음환호송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으리라.

복음 | 요한 12,20-33

성가 | 입당성가 [115] 1,2 예물준비 [175] 영성체 [197] 파견성가 [115] 3,4

미사봉헌

연미사	봉헌
손은경 데레사	송서희
신동환 아우구스티노	신동은
김대근 대건안드레아	송명중요셉
임순남 엘리사벳	익명
임순남 엘리사벳	박알버트
민병희 프란체스코	민성진 에드몬드
이중근 요셉	민재인 데레사
이중근 요셉	익명
이중근 요셉	신명풍물패
이중근 요셉	박알버트
유금순	김승연안나
임덕 신부님 Francis. H. beninati	박정호
허갑중 Robert Bellamine	허정윤 크리스티나
이종현, 목영순	이경자 율리안나
나기성 미카엘	나혜정
박창득 어거스틴 신부님	문홍빈
생미사	봉헌
이태주 레오, 장민우 레아 영명축하	예비신자, 견진성사 교리반
신윤길 요셉 영명축일, 영육건강	요셉회
김혜미 레오나	최병은 루치아
허현근 요셉	조귀숙
백선욱 레오	최병은루치아, 허철범베드로
서준후 안드레아	최병은루치아, 허철범베드로
백선욱 레오, 서준후 안드레아	학부모회
양정윤 젤마	익명

날짜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 지향	성찬 봉사	복사
3월 17일	김진수	김규현	진달래	진달래	민덕미	한데레사 이유스티나
3월 24일	조소연	송명근	민재인	민재인	김영숙	-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 미사	매월 2번째 토 18:00 아래 성당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신부님께 직접 문의
유아 세례	매월 2번째 주일 미사중 *신청:사무실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사무실
예비신자 교리 견진 교리	일반인을 위한 교리 *신청:사무실 환자, 어르신을 위한 방문교리 *신청:사무실

전신자 묵주기도 10만 송이 봉헌하기

기간: 10/01/2023~ 09/30/2024 *현재: 49,459단

▶오늘 미사 후 친교모임

다미아노 홀/ 성당 밖 좌측 20m

▶꾸리아 월례회합 및 아치에스

오늘(3/17) 11시부터, 아랫성당
대상: 레지오 전단원, 협조단원

▶사순시기에 함께 실천해요~

1)커피 한잔등의 기호를 줄여 공동체 모금 활동에 기여:
사순 저금통 2)건강등의 이유로 미사, 공동체 모임 참여가 불가능한 분들께 주보 보내기

▶판공성사

사순 시기중의 모든 고해성사는 판공성사로 간주됩니다.
본당 또는 다른곳에서 성사를 보신분들은 성사표를 사무실 앞 통에 넣어주세요.

▶성삼일과 부활성야 전례 안내

주님만찬 성목요일(3/28): 밤8시 대성당
주님수난 성금요일(3/29):밤 7시 십자가의 길부터 대성당
부활성야(3/30): 밤10시 대성당
*부활성야 미사중 세례와 견진성사 예식이 있습니다

▶제 24회 나눔의 바자회

날짜: 5월 19일(주일)
추진위원장: 강호영 안드레아 516-521-3113
부위원장: 강경모 토마스 310-413-1653
후원금 접수: 사무실 또는 친교실 재무팀 데스크

▶성물 판매

오늘 성물 구입 가능합니다. 세례식, 견진성사 받는 교우들을 위해 성물이 필요하신 분들은 친교실에서 구입하세요~
세례식, 견진성사일: 3/30 10Pm(부활성야)

▶어린이 주일학교 교리반

대상: 모든 어린이들, 주일 미사후 교육관으로 이동

▶중고등부 주일학교 교리반

대상: 6학년이상~ 12학년까지의 영어권 모든 청소년
모임: 미사후 성당 뒤에서 교사와 교육관 2D로 이동

▶중고등부 주일학교, 청년교사 모집

사랑스런 청소년 친구들과 함께 할 청년 교사를 모집합니다
교회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하고, 함께하는 활동안에서 재미를 체험하며, 교사들이 교회 안에서의 봉사하는 즐거움을 느끼도록 도와줍니다. 이 은총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의: Sr.HyoJu 347-834-5784

“주님, 제가 여기 주님 앞에 왔나이다. 주님의 뜻과 진실을 가르칠 자격과 능력이 부족하지만 제가 나누는 지혜와 사랑 속에 주님이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하늘처럼 성가대 반주자 모집

성가대 단원들과 마음 합하여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실 피아노 전공하신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반주가 가능한 본인 또는 주변에 추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의: 지휘자 이주윤 카타리나 646-696-4680

▶여성 39차 꾸르실료 교육 수강자

4/18(목)~21(일) 뉴튼 분도수도원
그리스도안에서 이상, 순종, 사랑이 하나임을 체험하는 그분과의 귀한만남으로 가톨릭 신자로서 단 한번 주어지는 교육피정입니다.
신청: 4/9까지, 간사 김마리클레어 917-485-0530

▶청년, 레지오 마리아 단원 모집

대상: 20대, 30대, 40대 남녀. **기도, 봉사, 따뜻함**이 있는 곳!
“기도 및 활동 나눔, 봉사, 본당 협조 등의 크고 작은 선교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희망의 모후Pr. 매주목 6pm 문의: 단장 정다경 347-514-5783
*우리즐거움의원천Pr. 매주일11am 문의: 단장 이기원 929-208-5147

▶KGB 가톨릭방송 주최, 사순시기 힐링 음악피정

한국의 유명한 가톨릭 찬양단 제이팸(j Fam)이 미동북에서 하느님의쉼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켓: 348-834-5784
참가비: \$20 (1 Day) *당일 현장 구입가능
일시: 3/23(토) 오후 6시, 뉴욕 베이사이드 한인성당
3/24(일) 오후 2시, 뉴저지 메이플우드 한인성당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공지사항

기부

주보

봄이 오는 소리



▶공동 십자가의 길

사순시기중 매 주일 08시 50분 부터 대성당

날 짜	주관 단체
3/17(일)	울뜨레아
3/24(일)	사목회

투병 중이신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옥지아가다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정창동폴리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이남석베드로 박재호베네딕트

CARGOZONE
LOGISTICS INC
양서윤 플로라 (FLORA YANG)
무역 수입 IMPORT & 수출 EXPORT
657-337-5130
marketing@czlusa.com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917) 370-0394
krishap@nestseekers.com

뉴욕 맨하탄 NYC INTEGRATIVE ACUPUNCTURE
마음힐리언스 한방병원
212-203-0072
Kakaotalk ID : nycacu

CHA PHYSICAL THERAPY
차 물리치료 | 침치료
16 W 32nd St. #1007,
New York, NY 10001
212-643-9326

이민/부동산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백승민
이민법 변호사
IMMIGRATION ATTORNEY
TEL. (551) 335-8868
EMAIL. EMIN@BAIKLAW.COM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W 58th St. WINE & LIQUOR
윈다킴 데레사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0AM-10PM / SUN:12PM-9PM

더큰집
TEL. 212-564-8238

WONJO
New Wonjo
212-695-5815

그리운 **miss KOREA**
10 W 32nd St. 1,2,3 FL, New York, NY
212-594-4963 전 스테파노

HANBIT TOUR, INC.
한빛여행사
Mary Lee
1270 Broadway #303 (32 St.-33 St.)
Tel: 347-840-2112 Fax: 212-631-8070
New York, NY 10001 hanbittour@gmail.com

마리아 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TEL. 212-594-7773, 646-808-7322

Hair City Elegance
교우분 환영합니다.
45-38 Bell Blvd. Bayside, NY 11361
데레사 718-423-4940

광고주를 찾습니다.

십자가 앞에 선 예수님

이제 사순 시기의 주일도 마지막을 향해 왔습니다. 곧 다가오는 주님 수난 성지 주일을 맞이하면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게 됩니다. 우리도 그 길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다가올 성주간을 기다릴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독서에서 예레미야 예언자는 이스라엘 집안과 유다 집안 사이에 하느님과 새로운 계약을 맺을 날이 온다고 선포합니다. 계약을 맺는다는 건 서로의 기억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이 계약을 지키는 이들에게 하느님은 '나의 하느님'이 되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기억은 계약을 통해 완전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전하시고, 선이신 하느님께 충실하지 못합니다.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하느님을 나의 삶에서 기억하지 못하는 날도 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들과 맺은 사랑의 기억을 잊지 않으시려고 상호간의 약속 계약을 맺었지만 늘 계약을 파괴하는 건 일방적인 편에서 우리들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 탈출을 체험한 이들이 수송아지를 만든 것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들이 하느님과 맺은 계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당신을 배반하더라도 용서해 주고,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죄와 허물 대신 사랑을 기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죽음을 예고하시며 아프지만 당신이 만나야 할 죽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죽음 뒤에 있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말씀하셨던 그 밀알은 땅에 떨어져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부활이라는 선물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밀알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계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새로운 열매로 태어난 우리들이 해야 할 건 죽음 뒤에 있는 부활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가는 것이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200년 전부터 김대건 신부의 탄생을 지켜보았을 소나무 숲을 걸어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십자가를 묵묵히 바라보고 계신 예수님의 길을 바라봅니다. 우리 또한 이번 사순 시기를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보셨던 그 자리에 서서 예수님이 하신 그 사랑의 행위를 기억하는 지킴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수형 필립보 신부